

# 경기도교육감 선거부터 교회투표소 없다

## 선관위 169곳 모두 변경 밝혀

십자가를 비롯한 종교상징물로 선거 시 일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온 교회내 투표소가 드디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3월 4일자 1면 보도(721호, '종교편향 시민이 잡는다') 당시 '4·29 재보궐 선거 교회투표소를 모두 변경하겠다'고 밝힌 전북, 광주 등 재보궐 지역선관위에 이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교육감선관위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 측에 폐지 및 교체사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시설 투표소 중 특히 교회 투표소는 유권자 종교자유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2007년 대선 시 1050곳, 2008년 4월 9일 총선 시 766곳에 달한 교회투표소에 대해 종교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4·9 총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기관 스님이 교회에서 투표하는 장면은 교회투표소가 종교인 선거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종교시설 투표소 제로화 운동'이란 주제로 지역사찰 간담회를 열고 신도회 등의 민원을 유도해 개선에 앞장선 범불교대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 투표소 폐지 방침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공직선거 시 종교투표소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종교편향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불기협 양산 통도사·표충사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는 3월 14~15일 경남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에서 2009년 불교기자연수회를 봉행했다. 50여 참가자들은 14일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에 참배하고 정우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며, 15일 표충사에서 사자평 케이불카 개발사업과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남북경색 불교가 뚫는다

## 조계종·천태종·진각종·평불협 등 북한과 접촉

미사일 발사계획과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남북경색 국면에 불교계가 관계개선을 위해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조국평화 통일불교협회(평불협),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민추본) 등은 3월 16~19일 중국 선양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을 만나 남북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평불협은 3월 16일 조불련을 만나 1997년 북한 사리원에 설립한 '금강국수공장'과 평양 국수공장 지원과

더불어 평양과 사리원 중 한 곳에 김치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조계종, 민주본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공동 발원문 발표하기로 하고, 금강산 신계사 봉축등 달기 등도 추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참여불교운동본부 또한 공동협력을 다짐했으며, 18일 진각종도 남북불교교류를 협의했다. 천태종도 19일 개성 영통사 순례 재개와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행회, 복원공덕비 봉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 평화재단은 3월 24일 서울 대 한출판문화회관에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위기,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제29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불교계의 한결같은 노력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한편, 조불련은 신계사, 영통사 법회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 민감한 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가 3월 말까지 회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法寶宗刹伽耶山海印寺)' 새 현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거)가 개산 1200여 년 만에 새로운 산문(山門) 현판을 달았다. 3월 16일 휴류문 광장에서 열린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法寶宗刹伽耶山海印寺)'의 산문현판식에는 선거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 수불 스님 등 사부 대중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길이 11m, 폭 1.5m에 달하는 현판은 조계종단 현판을 쓴 승전 정하건 선생이 해서체로 휘호 했으며, 대구예술대 미당 이주강 교수가 이를 서각했다. 사진제공=해인사 노덕현 기자

### 이사장 지옥 스님 임원취임승인 취소

#### 교과부, 서블대에 특별감사 결과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지옥 스님의 임원취임 승인과 황윤식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3월 17일 학교법인 보문

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게 보낸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5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옥 스님이 이사장에 있는 동안 이사로 선임된 유영남, 고인태 이사 승인도 함께 취소됐다. 조동섭 기자

### 재가연대 10주년 기념 좌담회

#### 21C 재가불자의 수행과 삶

불자 수행과 교육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기능으로 교단자정에도 일익을 담당해온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박동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18일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21C 재가불자의 수행과 삶'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마성 스님(필리핀현연연구소장)을 비롯해 박희택 교수(위덕대, 불교아카데미 원장), 신규탁 교수(연세대),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논의로 불자들의 바람직한 삶을 전망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재가자들은 스님과 경전이 아닌 사찰에 얽매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스님 등 우리 주변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들은 개인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부처님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근본 물음을 갖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탁 교수는 "일반 불자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읽기 등을 통해 자신의 기본소양을 닦는 것도 중요하다. 1가구 1경전 읽기 등 경전읽기 문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택 교수는 "그동안 많이 나온 주제별 불교대전을 최근 대중들이 관심있어하는 주제별로 새로이 묶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의 기도예배처럼, 불교도 생활속 차제로 수행활동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법사는 "무엇보다 법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길가, 공원 어디에서든 서로 불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고, 이 자리는 출가·재가의 구분 없이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 명칭변경 추진

#### 3월 19일 공고 전 불교계 상의 없어 논란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의 명칭 변경 공고가 불교계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3월 19일 서울시지정 동산문화재 222점의 지정명칭을 일괄검토하고, 학술적인 한자용어가 사용된 문화재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명칭변경에는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 141점 중 98점의 지정명칭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공고안(4월 19일까지 공고예정)에 따르면 불교문화재 중 불상의 '-불(佛)', '-여래'라는 명칭은 '-불'로, '-탱화'와 '-불화' 등은 '-도(圖)'로 통일된다. 또한 '-법종', '-동종' 등도 '-청동종'으로 통일된다. 서울시 공고로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석조예술투자(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는 석불좌상으로, 홍무 25년 장흥사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6호)은 봉은사 청동종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김전성 기자

하지만 이번 서울시 명칭변경 공고는 불교계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돼 문제가 되고 있다. 유계 일각에선 "명칭변경 공고 전 문화재 소장주체인 불교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김서란 학예연구사(문화재과)는 "이번 명칭변경 공고는 그동안 서울시 문화재 용어가 다소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아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지정 주체인 서울시가 초안을 만들어 공고기간 동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학예연구사는 또 "공고 첫 날부터 조계종, 태고종 등 각 불교종단, 학계 등에 공문을 보냈다"며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공고기간이 1달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향후 문화재 명칭변경안 확정시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짝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명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